

광주 지난달 취업자 수·고용률 연중 최저 기록

임시근로자 증가 고용의 질도 악화...실업자 전년 동월비 44% 증가 전남 취업자 3월 이후 최저...상용근로자 줄고 임시근로자 크게 늘어

지난달 광주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임시근로자, 자영업자가 상승하는 등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7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77만명) 대비 3000명(0.4%) 감소했다. 이달 광주시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치다. 올해 광주시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79만1000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속 감소하고 있다.

고용률 역시 60.0%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59.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동월에 견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000명·1.5%), 전기·운수·통신·금융(2000명·2.2%), 농림어업(1000명·2.7%) 등이 증가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8000명·-5.0%), 건설업(-4000명·-5.6%) 등이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8000명·6.0%)와 관리자·전문가(6000명·3.6%)가 증가했지만 서비스 판매종사자(-1만 1000명·-6.1%), 기능·기계조

작·조립단순(-5000명·-1.8%) 등은 감소했다. 지난달 광주시 고용환경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상용근로자는 2000명 감소했고, 임시근로자는 2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비임금근로자에서는 자영업자가 4000명(2.7%) 늘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6000명(24.8%) 감소했다. 지난달 광주시 실업자는 2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43.9%) 증가했고, 실업률은 0.8%포인트 오른 2.7%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지난달 취업자 수는 10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견줘 1만1000명(1.0%) 감소했다. 지난 3월(101만 1000명) 이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전남 고용률도 66.6%로 1년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2000명·6.5%), 건설업(5000명·7.1%), 광공업(1000명·1.2%) 등이 증가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4000명·-3.9%), 농림어업(-1만4000명·-6.3%) 등은 감소했다. 전남 역시 일자리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남 상용근로자 수는 4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1.2%) 감소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9만6000명으로 1만3000명(6.9%) 늘었다. 지난달 전남 실업자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달 전남 실업자 수는 2만명으로 1년전 대비 3000명(18.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 역시 1.9%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 제조업 생산지도 발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1일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광주전남지역 주요 제조업 생산지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제조업 생산지도는 지역 내 주력 제조업 6개 분야를 선정해 산업별 특징과 생산·수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지역별로 광주가 자동차와 반도체 2개 분야, 전남은 석유정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4개 분야가 선정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지도가 우리 지역의 제조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HS효성 별·나무 의미 담은 새 CI 공개...“산업입국 철학 계승”

공식 슬로건 '가치, 또 같이' 확정

HS효성이 '가치, 또 같이'를 기업의 공식 슬로건으로 정하고 새로운 비전과 기업 아이덴티티(CI)를 공개했다. 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등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을 계열사로 둔 기업인만큼, 과학과 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기업 비전을 제시했다. HS효성은 11일 "라틴어로 근원, 나무를 뜻하는 'mater'와 별을 뜻하는 'aster'를 결합한 'Masteria'로 새로운 CI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CI는 별과 나무를 상징하는 사각별 형태와



녹색, 파란색이 결합했다. HS효성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으로서, 그룹 창업자들의 철학과 새롭게 출범한 HS효성의 1기 경영진들의 비전을 결합한 디자인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상 부회장은 새로운 CI 공개를 맞아 "HS효

성은 창업자이신 선대회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산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산업입국의 철학과 60여 년을 이어온 효성의 역사를 계승해 나아감과 동시에, 인류를 위한 다양한 가치창출과 정도경영을 통해, 모든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전의 지평을 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HS효성은 '새벽별'이라는 '효성'의 사명에 담긴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CI에 '세상을 이끄는 별(Leading Star)'의 의미를 담았다. 'HS제'라고 이름붙은 서체에 사명 너머로 떠오르는 사각별 형상을 통해 HS효성의 진취적 기상과 강건함을 표출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HS효성은 또 이날 회사 비전으로 "우리는 과학, 기술 및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하여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창출합니다"를 제시했다. 과학과 기술,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통해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 고객과 사회에 진정한 가치를 제공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다. 새로운 비전은 조 부회장의 경영 철학인 '가치경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조 부회장은 앞서 지주사 출범행사서서 '가치, 또 같이'를 강조했는데, 이날 공식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광기술원 미 연구기관 CLTC와 MOU 미래 에너지 조명 국제협력



한국광기술원(원장 신용진)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UC Davis 산하 캘리포니아 조명기술센터(California Lighting Technology Center, CLTC)와 국제 공동 연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UC Davis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연구 중심의 대학교로, 미국의 10대 연구기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CLTC는 UC Davis 산하 연구 기관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함께 탄소 감축 및 전력망의 탄력성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 조명 솔루션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또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해 혁신 제품과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증을 통해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차세대 인간중심 조명 디지털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사업(발주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말타니, 연구기간 2024년 4월~2027년 12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조미령 한국광기술원 디지털조명연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조명, 인간중심조명, 빔공해, 탄소중립 분야의 기술 교류를 통해 국내 조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은행, 다자녀가정과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나눔문화·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광주은행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다자녀가정 지원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 광주은행은 11일 "지난 9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시장에서 지역 다자녀가정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명절나기를 위해 진행됐다. 광주은행은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이같은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차려상 물가에 부담을 느

끼는 다자녀 가정을 초대해 장보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은누리상품권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경기침체 및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에 힘을 싣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창립 15주년 비전 선포식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 6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연구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행사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연구원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각각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에너지 수도 전남 선도', '글로벌 에너지 실증연구 선도 및 싱크탱크 도약'으로 재정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 혁신 내재화, 윤리경영을 경영 방침으로, 미래시장 창출형 실증연구 강화,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

축, 지역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 전략으로 각각 수립했다. 황규철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창립 15주년을 맞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그동안의 발전을 기반으로, 앞으로 15년, 30년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해 에너지 수도 전남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탄소중립·RE100·분산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GGM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1021명 몰려

직군별 최고 53대 1 경쟁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11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46명을 채용하는 올 하반기 공채에 전체 직군에 1021명이 지원,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직 경쟁률이 53대 1로 가장 높았고, 기술직은 1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하반기 지원자들은 AI 역량 검사와 서류전형, 면접 전형을 거쳐 10월 중순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GGM은 올 하반기 채용외에도 광주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50명을 선발해 '산업체 현장 실습 제도'를 운영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업체 현장 실습은 13개 특성화고에서 선발한 50명에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차체, 도장, 조립 등 캐스퍼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도 받게 된다. 오는 19일부터 지원서를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운몽현 대표이사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자 사회공헌 성격의 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물론 우리가 생산하는 캐스퍼 전기차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시민들은 물론 구직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많은 상생형 지역 인재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단체교섭 마무리...노사 조인식

기본급 3% 인상·격려금 500만원

금호타이어가 10월 2024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광주공장서 노사 대표 및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최종 교섭에 합의했다. 2024년 단체교섭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인상(기본급 3%) ▲격려금 지급(500만원) ▲국내공장의 미래성장 및 고용안정 방안 등이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교섭은 회사의 실적이 가시

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하반기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일택 대표이사 사장은 "먼저, 합의를 이끌어 주신 노사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하다. 노사가 힘을 합쳐 후배들이 자긍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황용필 대표지회장은 "합의서가 잘 지켜지도록 서로 노력하고, 향후에는 노사가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반사회적 계약 원금도 무효

불법 대부업 제재·처벌 강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익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마담록대부업에 대해서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최고 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513.37 (-10.06)
코스닥	709.42 (-3.22)
금리(국고채 3년)	2.820 (-0.057)
환율(USD)	1339.65 (-3.22)